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민주 vs 혁신당 대결 '점입가경'

이재명, 1박2일 후보 지원... '호남 총력전' 나서 조국, 김민석 직격하며 "민주당은 호남 집권당" 李는 장현 후보·曁는 장세일 후보 간접적 비판

영광·곡성군수 재선거가 더불어민주당 당·조국혁신당 양당 지도부의 '잠전'으로 갈수록 뜨겁게 불붙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군수 재선거가 치러지는 영광과 곡성을 뺀 1박 2일 '호남 투어'를 시작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영광에서 현장 최고 위원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지역 현안인 쌀값 안정화 정책 간담회를 여는 등 민주당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지원에 나섰다. 이 대표는 24일엔 곡성으로 이동해 조상래 곡성군수 후보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지도부가 그동안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에 거리를 두던 것과 달리 호남 총력전에 나선 것은 그만큼 현장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실제 한준호 최고위원은 영광과 곡성 '한달살이'에 들어갔고 정청래 전 최고위원, 박지원 의원 등은 박빙 지역인 영광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영광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 출석하는 길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 "소규모 보궐선거이긴 하지만 의미가 적지 않다"며 "만약 결과가 조금 이상하게 나오면 민주당 지도부 전체가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스스로 이번 재선거 결과를 민주당 지도부 전체의 위기와 결부시킨 것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최고위 발언을 통해 "이번 선거는 군수가 누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닌, 정권에 다시 회초리를 들어 책임

을 묻는 선거"라며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또 "안타깝게 일부 후보는 '경쟁 자체가 없다. 내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적다'며 경쟁 체제를 벗어나기도 했다. 이런 식이면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없다"며 "이 점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영광군민들과 인사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장세일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와 함께 23일 영광터미널시장에서 군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광 영광군수 후보 경선에서 중도 사퇴하고 혁신당 후보로 나선 장현 후보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같은 날 혁신당 조국 대표

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혁신당을 두고 '상하기 시작한 물'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오려려 경쟁해야 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 대표는 "호남에서 민주당은 사실상 '집권당'이라며 "호남에서 정치 혁신, 새로운 선택지를 희망하는 분들이 매우 많다. 이 열망에 부응하는 것이 어찌 '상하기 시작하는 것'이나. 열망을 외면하고 경쟁을 억압하는 것이 바로 '상하기 시작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민주당은 혁신당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엄청난 규모의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렸다"며 "그게 경쟁의 효과, '조국혁신당 효과'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영광 영광군수 후보 경선에서 중도 사퇴하고 혁신당 후보로 나선 장현 후보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같은 날 혁신당 조국 대표

“김승남 도시공사 사장 후보 전문성 부족” 질타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23일 열린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과 농협법 개정안 입법의 특혜 의혹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안평환(더불어민주당·북구) 시의원은 “김승남 후보자의 경력이 주로 의정활동과 관련돼 있고 공공기관이나 기업 운영 경험이 없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임(국민의힘·비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해온 일과 도시공사 사장 일이 다르다고 보는데 어떤 소신과

잇따른 지적에 “큰 테두리 안에서 의정 활동과 일맥상통” 선거 재출마 여부엔 “취임시 일단 업무 매진” 여지 남겨

정확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할 때와 분명히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큰 테두리 안에서는 일맥상통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8년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일했지만 의정 활동은 국회 전반에 걸쳐 하는 것이고 전문가 소통과 정보 수집을 해왔다. 전문가와 소통하고 정보를 융합해 일을 추진하는 능력이 있고 혁신하는 역할도 잘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2026년 지방선거나 다음 총선 재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안평환 의원은 “강기정 시장은 자신이 임명한 산하기관 사장과 임기를 같이 하겠다고 공표했는데 임기 중이든 종료 후든 선거에 출마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출마 여부를 고민은 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취임하게 된다면 우선 사장 업무에 매진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국회의원 시절 제기된 농협법 특혜 입법 의혹에 대해서는 특혜는 없었

며 상임위 소위 의원 다수가 찬성해 통과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철의(민주당·서구) 의원은 “농협수위 소위원회 간사였던 후보자가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에 특혜 의혹이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했고 현 회장의 연임 자격을 부여할 지가 논란이었다”며 “저는 현 회장도 포함하지는 의견이었고 정치적 측면을 고려해 소위 9명 중 7명이 찬성해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29일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선강 기자

전남 청소년 수련시설 12곳 관리실태 안전 감찰

전남도는 23일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성 확보를 위해 24일부터 10월31일까지 6주간 수련시설 관리실태 안전 감찰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은 청소년 수련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난안전 위험요인 개선과

영지의 안전 무시 관행에 경각심 고취를 위해 진행된다. 감찰 대상은 순천·곡성·장흥·영암·장성·진도 등 6개 시·군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등 12개소다. 전남도는 ▲운영자 자체 안전점검

및 수련시설 배상보험 가입 여부 ▲소방·건축·전기·가스·시설물 안전관리 등 청소년수련시설 안전 분야 전반에 대해 한국가스공사 등 전문가와 합동 감찰할 계획이다. /김재정 기자

국힘, 내일 국회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장기정·김영록·김관영 3개 시·도지사 참석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가 25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215호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여당 국회의원들과 장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

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등이 참석한다. 또 국민의힘 김경현 광주시장 위원장,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 조배숙 전북도당 위원장도 참석해 내년 예산 및 정책 지원 사안에 대한 건의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국힘 곡성군수 재선거 후보 최봉의 확정

국민의힘은 23일 제16차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10·16 곡성군수 재선거에 출마할 후보로 최봉의씨를 최종 확정했다. 곡성 출신인 최봉의 예비후보는 재무설계, 투자 등 중견기업 임원을 역임한 경제 전문가다. 곡성에 필요한 현안 이해도와 해결 의지가 높고 여당 후보로서 예산 확보를 통한 곡성 경제 활성화와 지역 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최봉의 예비후보는 “30년간 특정 정



당의 독주 속에 후퇴하고 있는 곡성 발전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이끌고자 출마했다”며 “책임 있는 여당 후보로서 저출산, 고령화 등 산적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와 혁신적인 정책 추진으로 곡성의 미래를 새롭게 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재정 기자

호남학 연구진흥 HUB

한국학호남진흥원이 앞장서겠습니다

명 칭 호남학연구진흥협의회

출 범 일 2022년 11월 30일

주관기관 한국학호남진흥원

참여기관 유관기관, 대학, 학회 등 17개 처

- 🔗 호남학 진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 호남학 관련 기초연구 및 성과 공유
- 📊 호남학 연구진흥 활성화 및 확산
- 🤝 호남학 연구, 교육, 정책사업 등 협력

유 관 기 관

광주연구원, 광주문화재단, 전남연구원, 한국학호남진흥원

대 학 및 연구기관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지리산문화연구원, 원광대학교, 한문번역연구소, 호남학연구원,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학 회

남도민속학회, 歷史文化學會, 호남사학회

참 관

생명령 땅의 마음 전남, 기해도시 광주

호남학연구진흥협의회

주소 우)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4층(소촌동) 문의 062) 603-9620